중국 허난성에서 100㎞가 넘는 강풍에 날아간 사람들. [사진 = 웨이보]중국에서 아파트 창문이 뜯겨 나갈 정도로 심한 강풍이 불면서 행인 1명이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.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(SCMP)에 따르면 지난 14일(현지시간) 허난성 일대에 시속 100㎞가 넘는 강풍이 덮쳤다.돌풍으로 인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성을 덮쳐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.일부 지역에선 최대 시속 133㎞에 달하는 국지성 돌풍이 강타했다.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서는 이번 강풍에 따른 피해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.웨이보에 올라온 강풍 피해 영상에는 저녁 시간 한 노상에서 식사하던 남성들이 갑작스레 부는 거센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. 강풍이 지나간 후 남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.현지 기상 당국은 이번 강풍의 원인으로 고온의 날씨를 꼽았다.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동반한 한랭 전선과 만나면서 대류가 불안정해졌고 이 때문에 강풍이 발생했다는 것이다.  
  
  
  
 중국 허난성에서 100㎞가 넘는 강풍에 날아간 사람들. [영상 = 웨이보]